광주 서구, 장애인 위한 맞춤형 서비스 '호응'

장애인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방문 재활서비스 제공
독거 장애인의 재활의지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보행운동·낙상예방 등 생활 중 안전관리 교육서비스

광주 서구가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사업 일환으로 장애인의 재활촉진을 위해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재가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 마련된 재활치료실은 다양한 재활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있으며, 재활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소규모 예약제로 운영 중이고, 현재는 장애인 이동차량 운행 또한 중단된 상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재활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2명의 방문재활 전담인력이 세대를 방문하여 대상자별 분류에 따른 재활과 보행운동, 낙상예방 등의 생활 중 안전관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 장애인의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재활치료실(☎350-4191)로 문의하면 된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활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2차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지역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건강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강진보건소,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 건강관리 교육

강진군보건소는 지난 15일 세계모란공원에서 재가 암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암환자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순전남대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 백지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암환자 건강관리를 주제로 진행하고, 참여자 간에 암 관련 정보 공유의 시간도 가졌다.

보건소는 자조모임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스트레스 관리, 웃음치료, 뇌명상, 만들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이번 모임을 통해 함께 나누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재가 암환자 방문서비스 관리로 강진군민의 건강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주시, 장애인 참여·평등 위한 정책 마련 서둘러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유로운 이동권·자립생활 보장 촉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의 날 41주년을 맞아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제41주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광주 지역 장애인 단체가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한 세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1981년 '장애인의 날'이 시작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국제연합(UN)이 정하고 세계 시민이 바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은 신기루처럼 멀리 떨어진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은 지역 안에서 차별 받지 않고 똑같은 시민으로 살 '기본적 권리 보장'을 주장했지만, 공약과 정책은 10년 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며 "이것이 우리가 4월20일을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박광태·강운태·윤장현 전 시장부터 이용섭 현 시장에 이르기까지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좌절했다. 이제는 여전한 현실이 아닌, 달라진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0년 전 꿈꾼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세상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뤄지도록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충분한 도움을 받을 권리 ▲최중증 장애인도 시설로 떠밀려 들어가지 않고 지역에서 살 권리 등을 강조했다.

최윤희 기자

영광군, 읍면 복지서비스 '복지+건강' 기능 강화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요한 역할 수행

영광군은 방문복지팀을 5개 읍면사무소(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에 신설하고, 읍면 복지서비스에 건강 기능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방문 상담한 뒤에 가구별 특성에 따른 복지수요를 파악, 공적 서비스(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지원, 차상위지원 등)나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광군은 2020년 하반기에 간호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충원 배치하고 군민의 건강관리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읍면사무소 방문복지팀을 설치 운영한 결과 매월 1,000여 가구의 보건복지상담을 실시하였고, 1,500여 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광군 사회복지과 백형진 과장은 "개인방역을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먼저 찾아가 위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광양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준을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 관리, 신생아 목욕이나 수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2021년 5월 22일 출산(예정)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산모이다.

지원 확대로 3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는 월 597만 6천 원이며, 1인당 최소 15만 7천 원에서 최대 51만 4천 원까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이나 출산 순위, 소득 구간, 이용자가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지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광양=심종섭 기자